

전통사찰 규제완화 후 ‘불사의 지혜’ 절실

그린벨트 내 수목장 설치 허용 “사찰 청정성·수행환경 한 축 무너진 것” 평가 나와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의결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전통사찰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됐다.

본지 제743호 보도

법은 8월 7일부터 시행돼 보름여가 지났지만 벌써부터 교계 곳곳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접근과 중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이 알려지자 개발제한구역에 사유로 전통사찰의 개·보수를 위한 증축과 진입로 개설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불교계는 크게 환영했다.

조계종 대변인 장적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이 국무회의 통과 이틀만 지난 30일 “전통사찰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시행령은 전통사찰의 증축을 문

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협의하는 규모까지 가능케 하고, 증·개축시 부과되던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장 설치를 면제했다. 또, 진입로가 없어 재난방지에 어려움을 겪던 전통사찰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계가 수없이 제기하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된 모습이다.

몇몇 개발사찰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될 지 모를 증축 및 진입로 신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장 설치 허용 조항이다.

정부는 시행령에 제13조 1항을 신설해 개발구역내 사찰(종교단체)에서 수목장을 비롯한 봉안시설(불안당, 봉안탑, 봉안도) 등 장묘시설의 설치를 허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구역 내 사찰은 3만㎡(9091평) 이내의 수목장 설치가 가능하고 봉안시설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00구까



한 사찰의 수목장 풍경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 조성시 가능해졌다. 사찰 소유 산림에 수목장이 들어서는 것에는 “대중에게 다가서는 미래불교를 위해 국가가 장려하는 친환경장묘법인 수목장을 불교계가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행터전으로 청정해야 할 산중사찰에 수목장 등 장묘시설을 들

여 영가 장소로 더럽혀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소수일 뿐, “이미 다수의 전통사찰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이거나 자연공원법 규제를 받아 장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과 ‘자연공원법’으로 사찰의 청정성과 수행환경을 지탱하

던 한 축이 무너졌다는 평가도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불교계를 이종 삼중으로 얽혀있던 중첩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라는 표현은 사찰에 수목장 등 장묘시설 설치를 허용한 조항을 두고 총무원과 정부 간에 사전조율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며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자 정부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단 내 장묘관련 정책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환경 보존과 ‘삼보정재’ 및 ‘가람수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조종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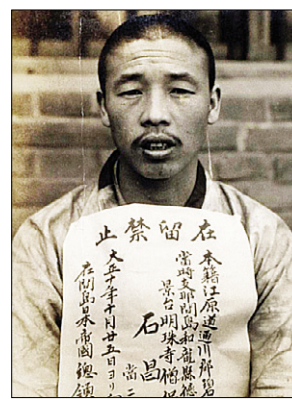
불교계 독립운동 기록 발굴

국가보훈처, 日 외무성 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일제강점기 불교계 등 종교단체가 비밀결사체를 통해 만주지역 독립운동 군자금 모금 활동을 벌인 사실이 기록된 사료가 발굴됐다.

국가보훈처는 8월 13일 일본 외무성이 소장한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처분보고서들을 엮은 <만주지역 본방인 재류(체류)금지 관계잡건(本邦人在留禁止關係雜件)>을 분석한 결과, 만주지역 독립운동 단체들의 군자금 모금활동 전모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만주지역 군자금 모금 실태는 대한국민회 북로군정서 등 일부 항일 단체의 전투사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학계에 알려져 왔으나, 이번 분



故 석창수 스님

석으로 단체와 직접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인물까지 밝혀지게 됐다.

자료에서 불교계 인물로 밝혀진 석창수 스님은 화룡현 명주사 스님으로 의군단에 투신해 탁발로 가장해 간도 지역을 돌며 군자금 모금에 나섰다. 체포돼 1921년 10월부터 1년간

재류금지된 것으로 기록됐다.

자료는 이 밖에도 천도교청년동맹회를 결성해 독립운동을 도왔던 오세환 이운백 선생 등 82명 알려지지 않았던 만주지역 각 종교단체의 활동도 담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1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책으로 발간했다.

조종섭 기자

문화재 선의취득 배제 ‘합헌’

헌법재판소 7일 전원 일치로 결정내려

중요지정 문화재나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했다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재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8월 7일, 문화재 매대상 A씨가 ‘민법상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은 문화재보호법 조항(제99조 4항)이 자신의 재산권과 직업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의취득 배제 조항을 넣은 것은 국제화·전문화해 가는 문화재 절도, 밀거래, 도굴 등의 문화재 범죄에 대응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화재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민법은 ‘선의취득’이라 해 어떤 물건을 ‘선의’로 취득했을 경우 넘긴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은 제99조 4항에서 △지정 또는 도난 문화재, △출처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훼손한 문화재의 거래시 민법의 선의취득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조종섭 기자

“공직자 종교차별 엄정 처벌하라”

조계종 종평위 성명서 내고 정부 적극 대처 촉구

조계종 종평화위원회(위원장 서영, 이하 종평위)는 8월 11일 성명서를 통해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의 공직자 종교차별에 대한 ‘술방망이식’ 처벌을 규탄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종평위는 “종교차별신고센터의 신고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해당기관에 협조요청, 통보, 관리감독 강화요청 등이 전부이며 처벌, 제재조치는 전무하다”며 “정부는 과연 종교차별 근절의지가 있는 것인지 종교종립 의무 법개정은 전시행정에서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종평위는 이어 “종교차별신고센터의 대응방식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종평위 접수사례 44건 중 대응사례는 28건으로 종교차별신고센터에서 진행된 사례조치도 2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에도 공직자 종교차별 행위가 늘어나는 근본원인이 처벌 조항이 없는법조항에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종평위는 “처벌조항이 없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유명무실함을 자초한 것”이라며 “정부는 개정법에 처벌조항을 추가하고, 각종 홍보, 교육 등으로 사회통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MB정부는 공직자 종교차별 등 종교편향으로 일어난 8·27법률교도대회 이후 불교계 요청을 받아 들어 문광부에 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어 진행된 공무원복무규정 개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서 공직자의 종교차별행위 시 처벌 규정이 삭제되면서 관련 기관과 법조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노덕현 기자

JTS·민족돕기운동 정부지원대상 선정

북미관계 개선 등으로 정부 대북 지원 재계가 검토되는 가운데 대북 지원단체 정부지원대상으로 불교계 단체인 한국JTS(이사장 범륜)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공동대표 영담)이 선정됐다.

통일부(장관 현인택)는 8월 3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10개 대북지원단체인단체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남북협력기금 약 35억 7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한국JTS는 취약계층 식량과 보건의료 지원 분야 등 대북인도지원사업에 각각 5억 4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통일부는 이번 선정에서 영유아, 신도 장애인 등 북한지역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다다가자 자연학교’ 세 번 더 불교환경연대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개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8월 14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자연학습 프로그램 ‘다다가자 자연학교’를 개최했다.

2009년도 불교환경연대 교육사업인 ‘다다가자다문화가정 친구들과, 다함께 가지, 자연 속으로’ 자연학교’는 체험교육 분야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자연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참가 학생들은 태안 신두리 사구 탐방 캠프에서 ‘기름유출 흔적을 찾아라’ 등으로 태안 기름유출 피해를 체험하고 모래와 조개로 만든 예코아트 등 생명살리기 문화행사에 동참했다. 이번 첫 프로그램에 이어 9월 12일, 10월 10일, 11월 14일에 환경캠프는 이어진다. 참가비는 1만5000원으로 30명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불교환경연대는 ‘자연과 어울려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02)720-1654 노덕현 기자

옥천불교연합신도회 창립된다

9월 18일 창립법회... 박영학씨 회장으로

옥천불교연합신도회가 창립된다.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철, 대성사 주지)는 8월 13일 옥천 진달래가든에서 추진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모임을 갖고 옥천불교연합신도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했다.

옥천불교사암련은 9월 18일 오후 2시에 옥천 관성회관에서 회원 200명으로 창립법회를 병행하고 회장에 박영학씨를 선출했다.

박영학 옥천불교연합신도회 신임 회장은 “회장의 소임을 맡아 심부름 큰 역할을 하면서 옥천군 최고의 봉사단체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옥천경찰서불자회 경봉회(회장 전동호)와 옥천불교연합청년회(회장 전수하)를 창립한 바 있는 옥천불교사암련 빠른 시일내에 옥천군청 불자회도 창립할 계획이다. (011)455-2652 혜철 총정지서장

조종섭 기자

무혈, 무통, 무약, 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



[장한빛 仙師]
독일 East West Alternative 메디칼센터 특수침술교수
임동 난방 침술연구
중국대외대학교 중의대학 객과교수
대한대학교 대체의학 최고위과정 교수역임
태가게 받았던 손은 평의 50인 선정
세종문화회관 관현선반드 특별강연
“암 정복의 길이 보인다”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등 7권의 건강서적 집필

전수교육 수료자 체험사례

신문 광고를 보고 이것은 가짜 아니냐며 진짜일수가 있다고 생각했다. 20년 한의사 생활에 비추어 보아 내가 저런 자신만만한 광고를 일간지에 낼수 있는 치료에 자부심을 가진 실력이 있는지 반문해보니 자신이 없었다. 그냥 광고를 보고 넘겼으나, 다음날 아침, 기수련중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신문을 찾아 강화도에 6일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 (비번시간을 쪼개서) 정글 정제 시간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결과가 도출되는 나 자신도 놀라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이 교육은 나의 의학적 시각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고, 인체를 다루는 모든분들이 공부해서 우리 사회에 이바지 하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정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구 수성구 한의사○○○(2기 수료)

국민일보 5월 14일 자 13면 하단에 무혈, 무통, 무약, 무수술 세계최강최고수 활인비전수 안배라는 광고문을 보았다. 그동안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의 질병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경침과 봉침에 대하여 교육도 받았고 관심이 많은 터라 자세히 광고문을 읽는 중에 정글정제, 정혈정혈, 통경활락이라는 상징어법과 비전수라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9박10일의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나서 보니 여가와보지 않았더라면 두고두고 후회를 할 뻔 했다. 침술비법은 물론 교정법, 테우기등 임상실현과 함께 이명으로 고생하던 할아버지가 듣게 되고 20년동안 다리가 저려서 유명한 병, 한의원을 다 다녀보았으나 효과를 얻지 못했던 환자가 2회의 시술로 뛰는 것을 보게 되고, 후두통이 즉시 사라지고 요통으로 고생하던 교육생이 완치가 되는 등,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놀랍고 대단한 세계 최강, 최고수업을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의학의 도인이고 인술의 대가이시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반드시 또 와야겠다.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목사 김○○(3기 수료)

오늘이 재교육의 마지막 날이다. 처음 교육때는 배워서 남을 치료한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지병부터 고쳐보고자 생각하고 왔는데 나의 생각이 너무 옳았다. 생각이 틀렸다. 나의 몸을 관리하면서, 옆에 아픈 분들과 관리를 하면서 그 즉시 각종 통증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병원에 수없이 다니면서 치료를 받다가 낫지 않았는데 단 몇 분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모든 통증이 썩 거시고 낫는 모습을 보고 감탄할 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심수년 동안 아파왔던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고 걷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졌다. 또한 위장병과 변비도 많이 개선되었고, 이제는 생각이 확 바뀌었다. 이 좋은 치료방법을 배워서 남을 위해 아픈 사람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 대한 도독이며 선사님의 가르침에 대한 따르지 아니 함이니 부득이나도 열심히 배워 활인비법을 가르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몇 번 망설임 끝에 한번 믿어보고자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의 생각은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과정이 몸에 익어 가는 것 같다. 침 몇 개로 오십견과 허리통증을 낫게 하고 정글정제 비법으로 몇 분만에 몇 십년 앓아오던 관절과 발 저림을 낫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이런 좋은 활인법을 가르쳐주시 원장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면교육에 같이 참석하여 서로 도와주며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강원 홍천군 홍천읍 승려○○○(3기 수료)

- ◆ Triple combination therapy (三正요법)
- 1) 正骨整體 :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 (活人氣功)
- 2) 正血清血 : 전신의피기 맑아야 無病長壽 (15개연못論)
- 3) 正氣(通經活絡) : 萬病之根源 氣滯血瘀, 세계최강 山蔘 면역침술

내과적영역 초, 중, 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약시, 백내장, 치주염, 아토피등 악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악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요실금, 자궁근종, 물혹 (파킨슨, 루게릭은 임상중)

※ 10년 ~ 20년 이상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 ~ 10회의 시술로 90% 이상 치유됩니다.

- ▶ 교육장소 : 강화도 한빛修練院 (전등사인접)
- ▶ 교육기간 : 8월 21일 ~ 8월 23일 2박 3일
8월 28일 ~ 8월 30일 2박 3일
- ▶ 교육안내 : 032)937-2808, 7182 010)8327-2738

외과적영역 수술날자받은 경추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초기강직성척추염, 안면마비, 모든 종류의 두통, 삼차신경통, 좌골신경통, 골반통, 항강통, 어깨걸림, 오십견, 테니스, 골프엘보우, 수족마비, 3.4기골다공증, 하지무력증, 통풍, 류마티스, 퇴행성무릎관절염, 악성무좀,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생리통, 채머리증, 수전증, 족저통, 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 10년 ~ 20년 이상 된 묵은 통증이 5분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90%이상 사라집니다.

• 교육대상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 (통증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등 의료인), 한의사, 중의사, 물리치료사, 승려, 목회자, 태권도, 합기도 관장, 수련원, 단식원 운영자 및 대체의학 전통의학에 관심 있는 분, 각종 난치, 고질, 희귀성 질환자 가족분